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세계 주요 중앙은행별 완화 정책 종료 순서는?
 - ◇ (시장진단)-외인 5 개월 만에 코스피 순매수 전환..지속성 결정지을 변수는?
 - ◇ (초점)-베테랑 운용역들 한목소리 "채권 롱도 쉽지 않고 숏도 어려워"
 - ◇ (초점)-달러/원 단기 지지선 넘어 하락 추세 굳건..챙겨야 할 변수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걸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코로나 19 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도의 뉴델리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사망자를 집단 화장하는 화염 사이로 한 남성이 뛰어가고 있다. (로이터/아드난 아비디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30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12.3	0.5%	-2.3%	+6.5%	유로	1.2018	-0.7%	-1.6%	+8.9%
100엔 대비	1,022.1	1.0%	2.9%	+1.1%	엔	109.27	-1.2%	-5.5%	+5.2%
유로 대비	1,342.6	0.5%	-1.2%	-2.3%	위안	6.4720	0.3%	0.9%	+6.7%
위안 대비	172.56	-0.6%	-3.6%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3,874.85	-0.5%	10.7%	+7.2%
코스피	3,147.86	-1.2%	9.5%	+30.8%	나스닥	13,962.68	-0.4%	8.3%	+43.6%
코스닥	983.45	-4.2%	1.6%	+44.6%	S&P500	4,181.17	0.0%	11.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6.37	0.5%	5.2%	+19.8%
국고채 3Y	1.141%	2.1bp	16.5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30%	5.7bp	29.5bp	-14.5bp	미국채 2Y	0.162%	0.3bp	4.1bp	-144.0bp
국고채 10Y	2.128%	8.5bp	41.5bp	+3.0bp	미국채 10Y	1.626%	6.6bp	71.4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3.58	2.3%	31.0%	-20.5%	한국 5Y	19.7bp	-0.6bp	-2.2bp	+0.1bp
금(현물)	1,768.59	-0.5%	-6.8%	+25.0%	일본 5Y	17.3bp	0.6bp	2.3bp	-4.5bp
TR상품지수	2,988.91	2.4%	11.5%	+7.8%	중국 5Y	37.3bp	-1.3bp	9.2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5월 3일(월)>

- 기재부·한은, 한중일 재무장관회의(09:30),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11:30), 제 21 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11:30), 제 24 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6:30)
- IHS 마켓, 4월 니케이 한국 제조업 PMI(09:30)

<4일(화)>

-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10:00)
- 한은, 4.15 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5일(수)>

- 공휴일

<6일(목)>

- 한은, 4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7:30), 부총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09:30)
- KDI 현안분석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 효과'(12:00)
- 통계청,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7일(금)>

- 한은, 3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5: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5월 3일(월)>

- 유로존, 4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17:00)
- 미국, 4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22:45)
- 미국, 5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4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3:00)
- 중국, 일본, 영국 휴장

<4일(화)>

- 호주연방은행(RBA), 통화정책회의 (13:30)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 (22:45)
- 미국, 내구재 수정치·공장주문 (23:00)
- 중국, 일본 휴장

<5일(수)>

- 유로존, 4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17:00)
-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4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4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22:45)
- 미국, 4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23:00)
- 중국, 일본 휴장

<6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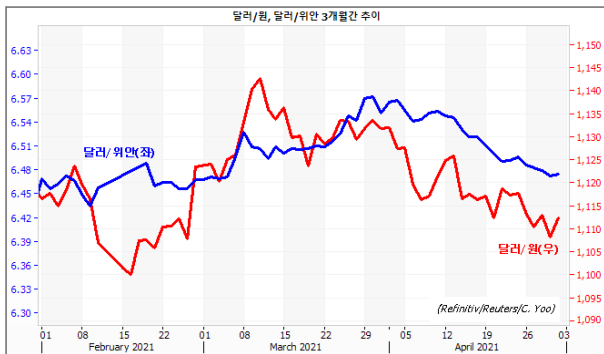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 안정 보고서 발표·기차회견 (06:00)
- 일본은행(BOJ), 3월 18-19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08:50)
- 일본, 4월 서비스업 PMI (09:30)
-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3월 소매판매 (18:00)
- 영란은행, 금리 발표·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20:00)
- 미국, 4월 챌리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1분기 노동비용 잠정치 (21:30)

<7일(금)>

- 중국, 4월 수출입·외환보유고
- 미국, 4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21:30)
- 미국, 3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 (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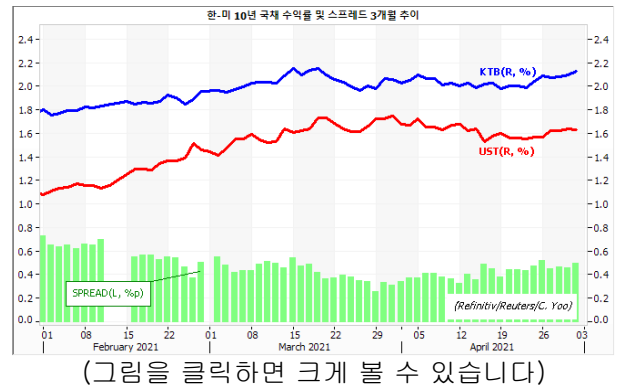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전망>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방향성 탐색 과정을 이 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5-1125 원이다.
- 지난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견조한 국내 펀더멘탈에 힘입어 단기 박스권 하단인 1110 원 을 이탈해 하락 추세를 굳히려는 시도에 나섰지 만, 수급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1110 원대로 복 귀해 마감했다.
- 내국인 해외투자를 비롯한 주식 투자용 역송금 으로 추정되는 커스텀 매수가 달러/원 반등을 끌어내면서 시장 심리는 조금 애매해졌다.
- 달러/원 하락 전망은 여전하지만, 수급 동향을 살피는 작업이 선행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하락 에너지가 분산될 수도 있겠다.
- 이런 가운데 1 일 발표된 4 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급증해 약 10 년 만의 최대 증가 율을 기록했다. 다만, 수입도 33%나 증가해 2010 년 6 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 과 무역수지는 12 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4 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 무역수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최근의 활발 한 선박 수주에 따른 달러 공급을 고려해야 하지 만,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축소 현상도 수 급상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 한편, 당분간 시장은 주요국 경제지표에 대한 관 심도 높일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 월 정책회의에서 아직은 정책 전환의 때가 아 니라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미 국 경제회복 가속화 흐름 속에서 주요 경제지표 의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된다면 시장 내 긴축 부 담은 언제든 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전망>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금융당국의 RP 유동성 규제 강화 효과와 4 월 소비자물가 발표 등을 재료로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그야말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장세다. 국채선 물 매수를 늘려왔던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매도 로 돌면서 혼란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다만 큰 흐름을 보면 시장금리가 국고채 입찰 주 기에 연동하며 움직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월말 에는 어김없이 밀린다. 월초 국고채 30 년물 입 찰 등을 잘 넘기면 조금씩 다시 강해지지만 월말 에는 또 어김없이 밀리는 패턴이다.
- 5 월부터는 익일물 RP 조달 금액의 20%까지 현 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기 존에 익일물 RP 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추 가로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 시장 참가자들은 기일물 RP 거래를 늘려 대응해 야 하는데 시중은행의 RP 매수 수요가 그만큼 늘기 어렵다. 결국 채권 포지션을 일정 부분 줄 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 4 일 발표되는 4 월 소비자물가도 중요하다.
- 기저효과 때문이기는 하지만 2 분기 내내 2%대 물가를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017 년엔 1 월부터 물가가 2%를 넘었는데 8 월 에 2.5%를 찍은 후 결국 10 월에 기준금리를 인 상했다. 이후 금통위는 1 년을 기다리는데 이 기 간 중 저물가가 이슈화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18 년 9 월부터 11 월까지 물가가 다시 2%대 로 올라서자 금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기준금리 를 인상했다.
- 2%대 물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통위의 스탠 스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채권시 장도 그 영향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프/분석)-세계 주요 중앙은행별 완화정책 종료 순서는?

런던 (로이터) -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지난주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도입한 부양 조치 축소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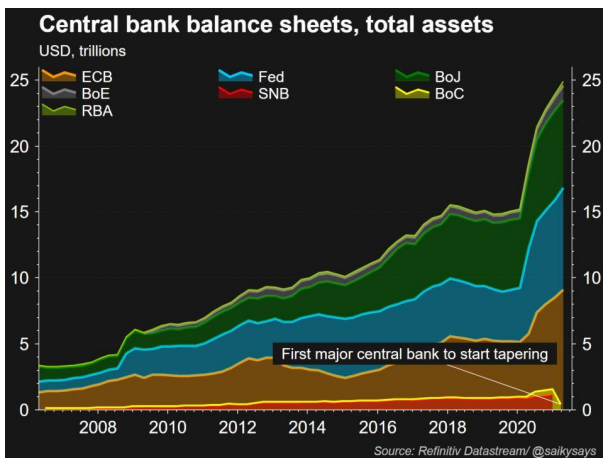
시장의 관심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쏠려 있다.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 중앙은행은 한동안 공식적으로는 부양책을 거둬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넷웨스트마켓츠의 존 브릭스 글로벌 전략 헤드는 고객들에게 BOC가 주간 국채 매입 규모를 10억 캐나다달러(8억 600만 달러) 줄인 것은 투자자들에게 올해 테이퍼링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경제지표가 전망 개선을 신호하는 가운데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과 일본, 유로존, 영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가 지난해 약 9조 달러에서 3조 4000억 달러로 줄고, 내년에는 4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어느 통화 당국이 자산 매입을 줄이고 있는지, 누가 금리를 올릴지, 또 누가 마지막으로 통화 부양책을 거둬들일지 살펴보자.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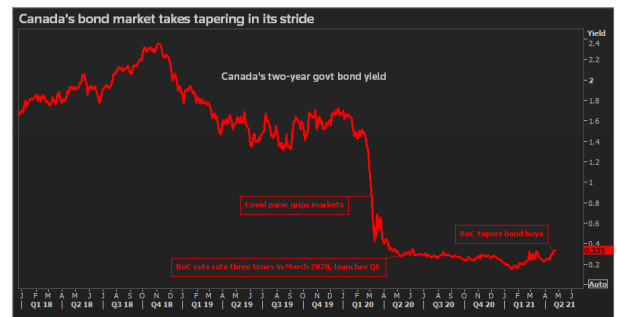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지난달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부양책 철회의 선봉에 섰다. 이에 크로네는 G10 통화 가운데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채권시장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 추측과는 관계가 없다.

2. 캐나다

테이퍼링을 발표한 캐나다는 2022년 후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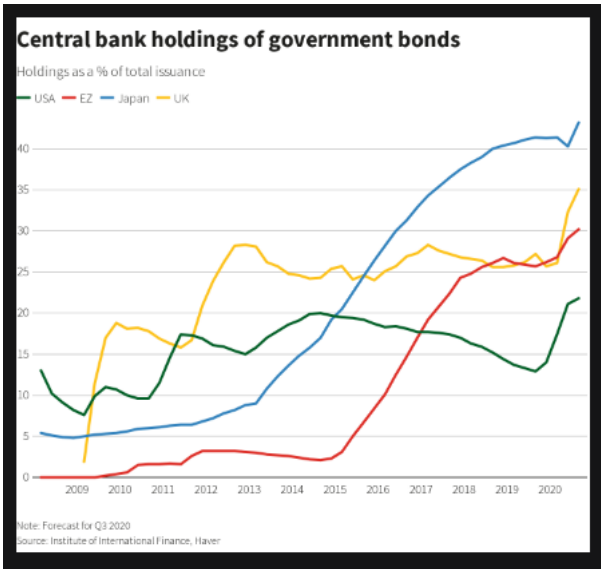
3. 미국

연준은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로 부근 금리와 월 1200억 달러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은 2023년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고, 많은 애널리스트는 올해 테이퍼링이 시작되리라고 예상한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개선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토마스 코스터그 픽셋자산운용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초 테이퍼링이 시작돼 월 100억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로써 그 과정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인데 "첫 번째 금리 인상 전망 시기를 멀리 유지하기에 충분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 영국

영란은행의 매파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헬데인이 사임하면서 8950 억파운드(1 조 2000 억달러) 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당분간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영란은행은 올해 말 인플레이션을 1.9%로 예상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부진으로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넷뉴스 애널리스트들은 영란은행이 5월 중 양적완화 규모를 월 140 억파운드로 40 억파운드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머니마켓은 2022년 말 금리 25bp 인상 가능성을 56%로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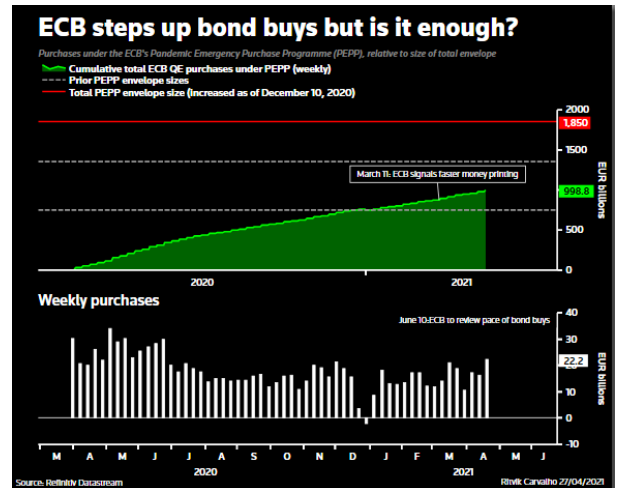
5. 유로존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미해 유로존 금리는 수년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1 조 8500 억유로(2 조 2000 억달러) 판데믹 긴급 채권매입프로그램(PEPP)에서 테이퍼링이 일찍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

사실상 PEPP는 2022년 3월까지 유지되겠지만 일부 관리들은 이미 경제 개선에 채권 매입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단스케뱅크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PEPP 자금 중 1 조 6500 억유로만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웨스턴에셋의 안드레아스 빌마이어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EPP가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6. 호주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 4월 경제 반등세가 기대 이상이고, '추세 이상의'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익률 곡선 관리(YCC) 도입으로 도비시한 입장을 강조한 RBA는 가장 늦게 정책을 긴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RBA는 정책 조정에 앞서 실업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2-3% 목표 안으로 유지하길 원하지만, 둘 다 2024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가 그때까지 동결되고, 심지어 자산 매입이 750 억호주달러에서 1000 억호주달러(580-770 억달러)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7. 뉴질랜드

강력한 경제 회복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예상보다 빨리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강화됐다.

올해는 금리가 0.25%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 하반기 인상을 예상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1000억 뉴질랜드달러(720억 달러) 규모 양적완화 프로그램 축소는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스웨덴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2% 목표에 접근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금리를 수년간 0%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7000억 크로나(8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올해 계획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9.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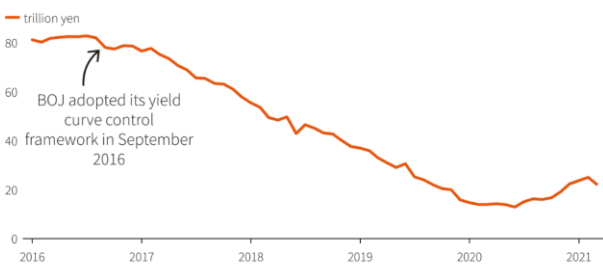
BOJ는 이번 주 수익률 목표치와 국채 및 주식 매입을 활용한 부양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BOJ는 지난 2016년 YCC를 도입한 이후 채권 매입을 줄여 '은밀한 테이퍼링'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다만 지난해 매입 규모는 다소 늘어났다.

지난 3월 자산 매입액은 1년 전보다 22조 2000억 엔(2040억 달러)가량 더 많았다. 하지만 YCC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6년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 81조 9600억 엔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BOJ has stopped 'stealth' tapering its JGB buying

Chart shows y/y increase in the BOJ's long-term JGB holdings.



Source: Bank of Japan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0. 스위스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국내 채권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대신 스위스프랑을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20년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1100억 프랑(1200억 달러)에 달했다.

스위스프랑은 이전만큼 고평가돼 있지 않지만 SNB는 개입 정책을 거들 조짐이 없고, -0.75%인 금리는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진단)-외인 5개월 만에 코스피 순매수 전환.. 지속성 결정지을 변수는?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난 4개월간의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낼 것이 확실시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 기조가 자리 잡기에는 변수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30일 오후 2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1500억원 내외 순매도했으나, 월간으로는 약 7900억원 순매수를 기록해 작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 순매도를 끝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추세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달러와 미국 채권금리 안정 등 대외 요인과 함께 반도체 업황 개선 지속, 신흥국 중심의 코로나 19 확산세 진정 등을 꼽았다.

▲ 반도체 투자심리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화학, 철강 등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반도체 대표주는 되려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29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LG 화학 7800억원, SK 텔레콤 3900억원, 포스코 2100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은 각각 1600억원, 1800억원 순매도하면서 무려 1.4조원, 9200억원어치 순매수했던 작년 11월과 대조적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추정 실적 발표일을 전후로 수급 방향이 전환됐다. 이달 첫 5거래일간 1.2조원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추정 실적 발표 이후 매도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1.4조원을 팔아치웠다.

최근 반도체 업황을 두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재고 축적' 가능성 또한 제기되면서 단가 상승세가 하반기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부각된 영향이다.

노동길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 유입을 확신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IT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흥국 코로나 19 확산

인도 등 몇몇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확산 소식이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악화시켜 전 세계 패시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

패시브 자금 추이를 가리키는 대표 지표인 iShares MSCI 신흥시장 및 한국 ETF 설정 좌수는 4월 월간 기준으로는 각각 3% 이상 증가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이달 중순 이후 신흥시장 자금 유입 둔화와 함께 한국 ETF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작년 11월에는 신흥시장 전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성격이 짙었다면, 올해 4월에는 그런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고 실적이 도드라지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유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시장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서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 유입을 위해서는 인도 등의 확산세 진정으로 신흥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 공매도 재개는 긍정적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금지된 공매도가 5월부턴 재개된다는 점은 향후 외국인 수급 환경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 등을 보았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투자 기법이 제한됐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이후 국내 증시에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공매도 규제가 장기화될 수록, 글로벌 롱숏 헤지펀드들의 투자 채널을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최근

수개월 동안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세를 지체시켰던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그동안 국내 증시에 선불리 투자를 못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인이 생겨남과 동시에,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포함한 수급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과거 공매도 재개국면의 공통점은 재개 2개월 전후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도 공세가 22.3조원으로 가팔랐던 만큼 오히려 이익 대비 저평가 기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둘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초점)-베테랑 운용역들 한목소리 "채권 롱도 쉽지 않고 숏도 어려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받은 국내 베테랑 운용역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전 세계 모든 자산 랠리에 따른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지속 시그널은 믿을 수밖에 없다', '시장금리는 결국 오를겠지만 지금 숏 포지션을 잡기도 롱 포지션을 잡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4월 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테이퍼링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최대 고용과 일정 기간 2%를 넘어서는 물가 상승률 달성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힌 것은 예상보다 도비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물론 FOMC 회의 직전 캐나다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긴장했을 뿐,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예상 수준 그대로였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지표가 분명한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금리는 결국 오를 것'이라는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결국 현재의 성장률, 물가 지표의 개선 흐름이 통화 당국의 인

내를 시험할 수준까지 지속적일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A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개인적으로는 8월 잭슨홀 미팅 때 연준이 테이퍼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6월 FOMC 회의를 분기점으로 보는 듯하다"며 "테이퍼링 시그널이 잭슨홀 미팅까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적일 것이고 6월에 나오면 모든 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테이퍼링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일 것이냐도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에선 테이퍼링을 장기물 위주로 할 것이니 커브가 서야 한다고 하지만 테이퍼링 신호와 함께 경기 상승세가 꺾이면서 커브가 오히려 누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며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수급 부담 역시 무시 못 할 재료다. 코로나 19 재난위로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등의 문제가 하반기까지 채권 투자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면서 금통위를 압박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이 모든 재료를 인지하고도 포지션을 구축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대내외 금리가 궁극적으로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백신 접종률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어느 나라든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 질문은 지금 채권을 매수해서 먹을 수 있느냐"라며 "포지션을 결국 언젠가는 때려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월 사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단기 롱과 이익 실현 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역외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도 롱 포지션을 잡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며 "지금 5년 달러 이자율스왑(IRS)을 숏하면 한 달에 3bp 씩 터지고 3년 IRS 숏은 2bp 씩 터지는데 연준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롱 포지션을 잡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숏 포지션을 잡기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오르긴 오를 텐데 얼마나 오를지는 사실상 중앙은행에 달린 것인데 막상 안 올라가고 옆으로 기면 시가평가로 계속 터지는 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의 A 은행 운용부장은 "일단은 중앙은행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며 "경제지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노려야 하는데 그 기준을 레벨로 해야 할지 아니면 시황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IRS는 레벨만 보면 충분히 오퍼할 수 있는 레벨이지만, 1분기 GDP 발표 이후 향후 금리 인상을 생각하니 페이해야 할 것 같고, 페이하려고 하니 CD 발행금리와 유통금리 차가 너무 나서 헛갈리는 상황"이라며 "현물이든 IRS는 확실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초점)-달러/원 단기 지지선 넘어 하락 추세 굳건..챙겨야 할 변수는?

(※ 4월 29일 송고한 기사입니다)

서울(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29일 건조한 하락세를 보이며 새로운 저점 찾기 작업에 돌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가 확인되자 글로벌 달러가 약세 시동을 걸면서 달러/원은 1110원을 하향 이탈해 2개월 최저치로 내려섰다.

4월 정책회의에서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강화하면서도 아직은 정책 전환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테이퍼링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 다소의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 등을 밝혀 연준의 온건한 정책 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달러지수가 9주 만의 최저치로, 역외 달러/위안은 6.46 위안대로 내려 한 달 만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은 지난 2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려나 새로운 저점 찾기 작업에 돌입했다.

▲ 1100 원 아래 염두에 둔 시장..속도는 지켜보아야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1090 원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원 1110 원이 깨지니 결제도 나오지만 환율이 더 빠지기 전에 팔려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1090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시장 컨센서스가 아래쪽으로 돌아섰다. 역외들도 스태핑이라기 보다는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오피로 추정된다"면서 "한국 경제 회복력도 확인되는 측면에서 달러/원에 대한 뷰는 아래쪽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연초 달러/원 환율이 1080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빅 피겨'인 1100 원 하향 돌파 자체에 부담은 적지만, 과연 돌파 이후의 추가 하락이 가팔라질 경우 당국과의 공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최근 달러/원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당국 경계감도 솔솔 커지고 있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원 1100 원을 넘어가면 분위기가 아래쪽으로 쓸릴 수 있는데 이를 당국도 신경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의 A 은행 딜러는 "당국이 역외 동향 등 주의 깊게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듯하지만, 아직은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환율이 하락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외국인 주식 자금 동향을 주로 살피고 있다.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추세를 보일 때 달러/원 환율이 레벨 부담을 덜어내고 본격적인 하락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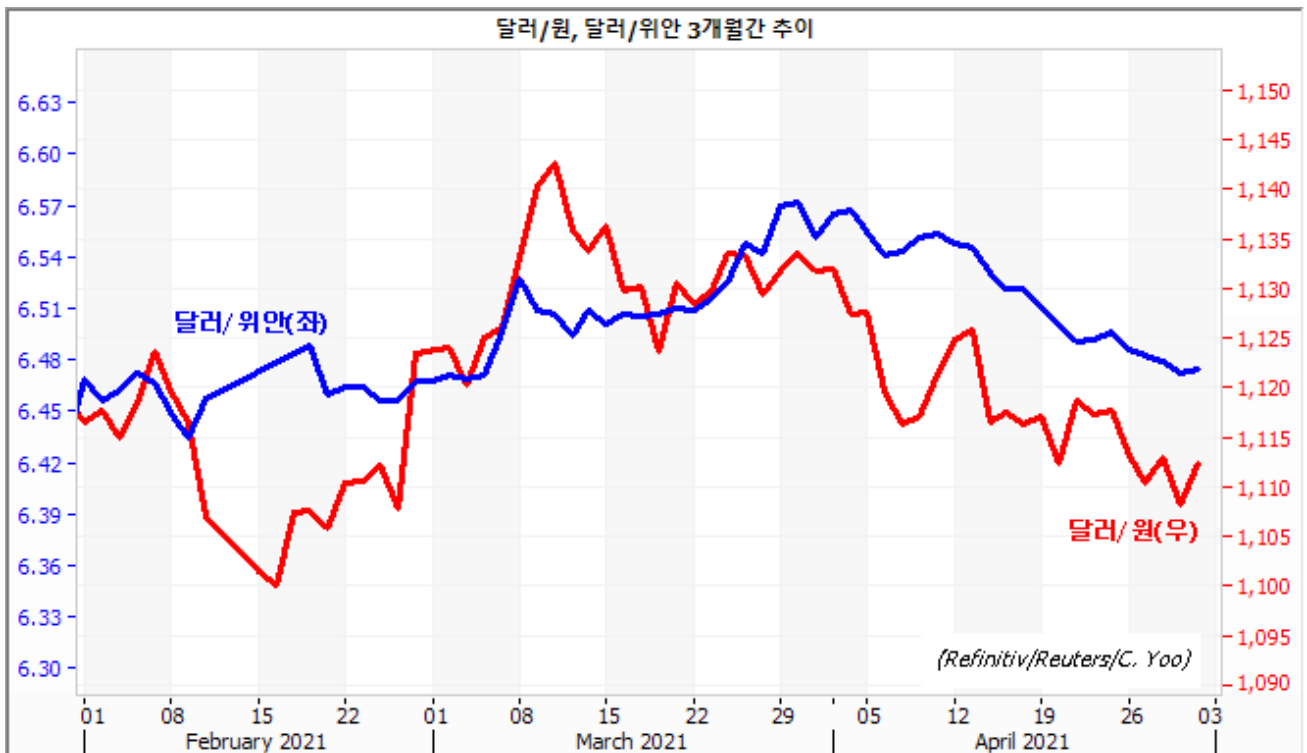
D 은행 외환 딜러는 "아직은 역외들의 공격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분위기상으로는 환율이 빠질 듯한데 외인 주식 유입은 제한적"이라면서 "1105 원 밑으로는 별다른 지지선이 없지만 적극적인 외인 주식 자금 유입이 뒷받침돼야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계속해서 월간 순매도를 기록 중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4월 들어서는 28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9천억원 상당을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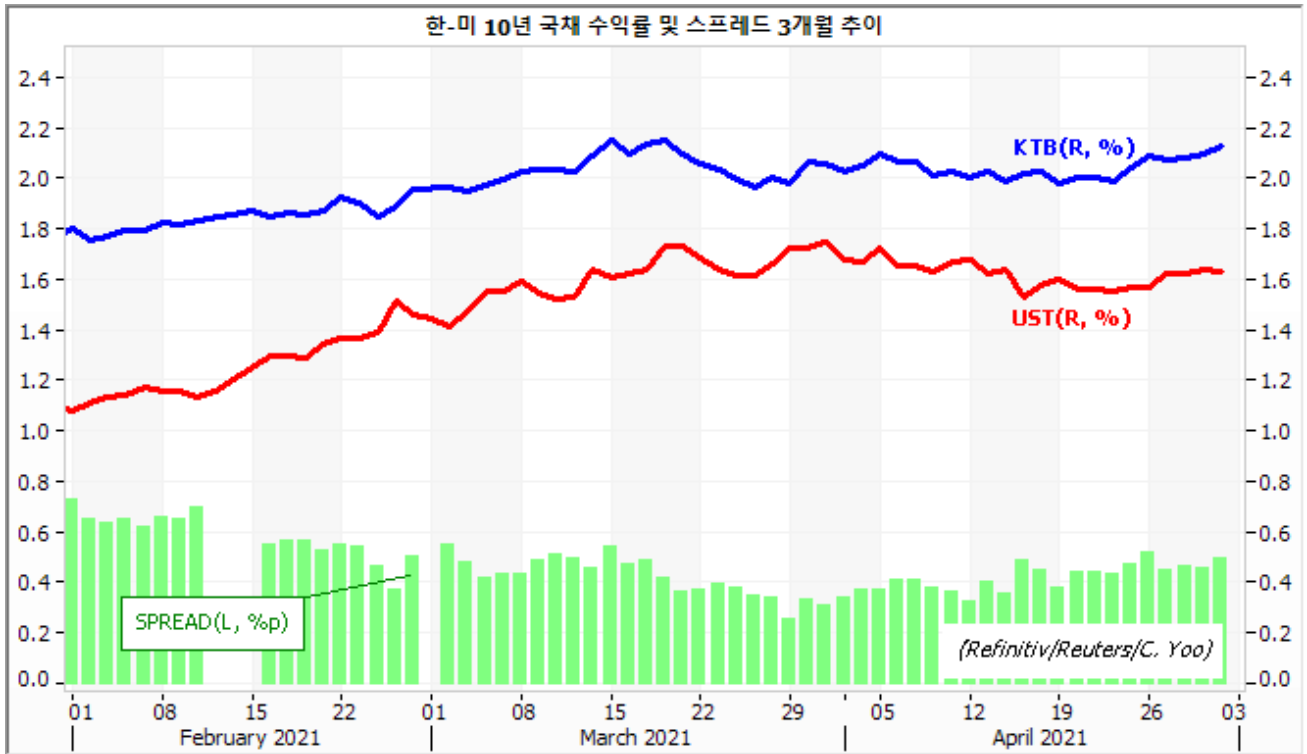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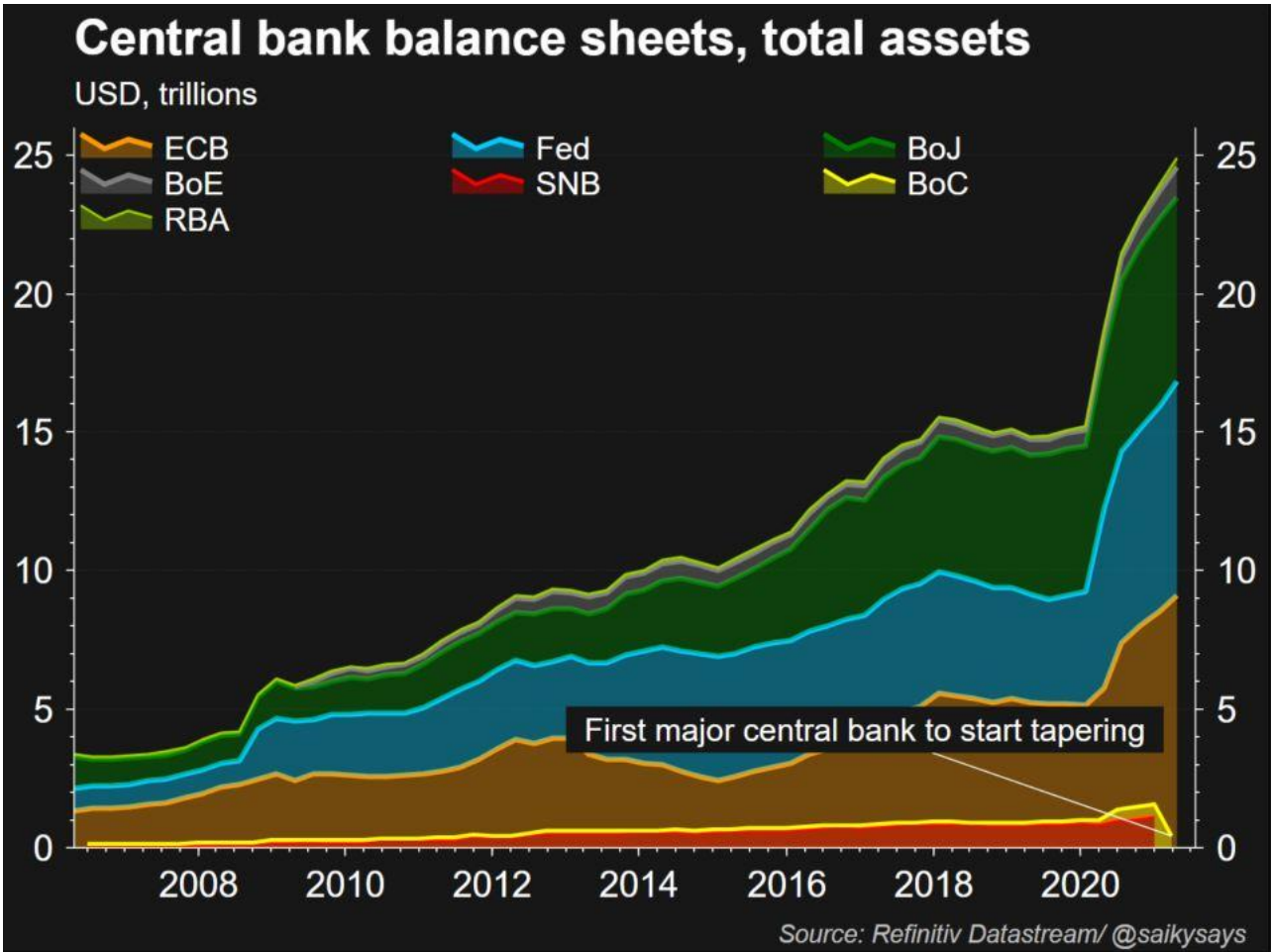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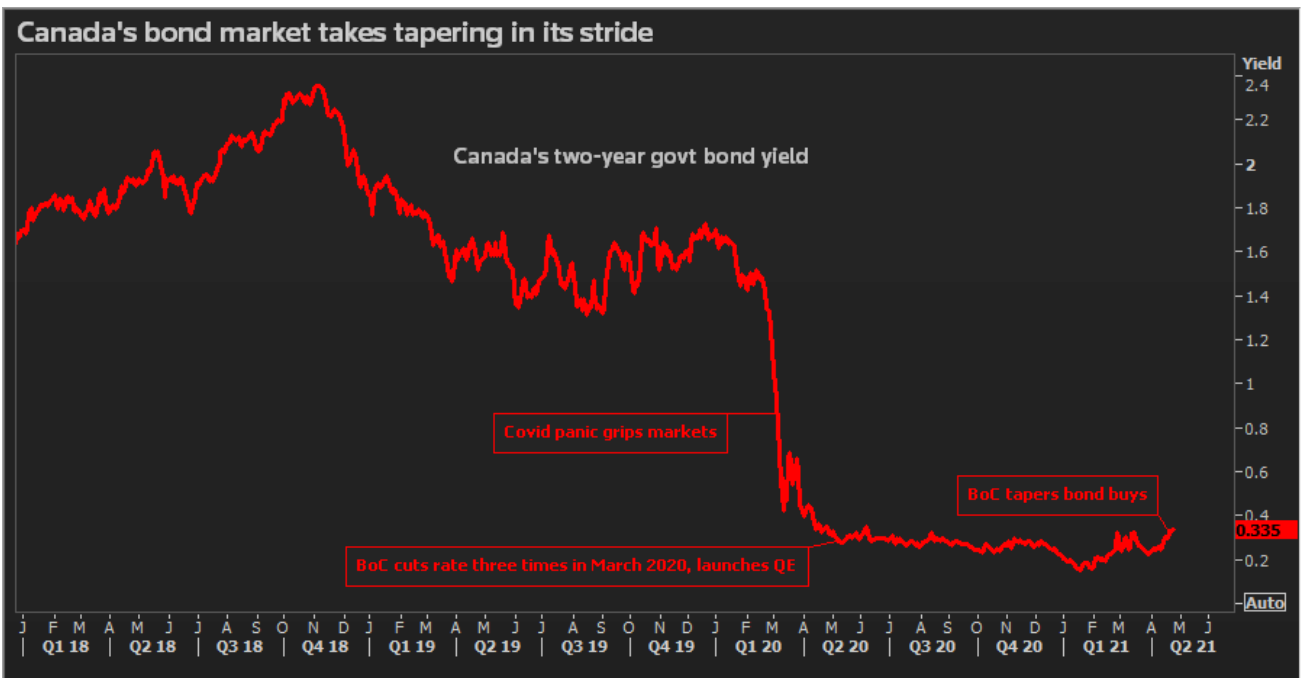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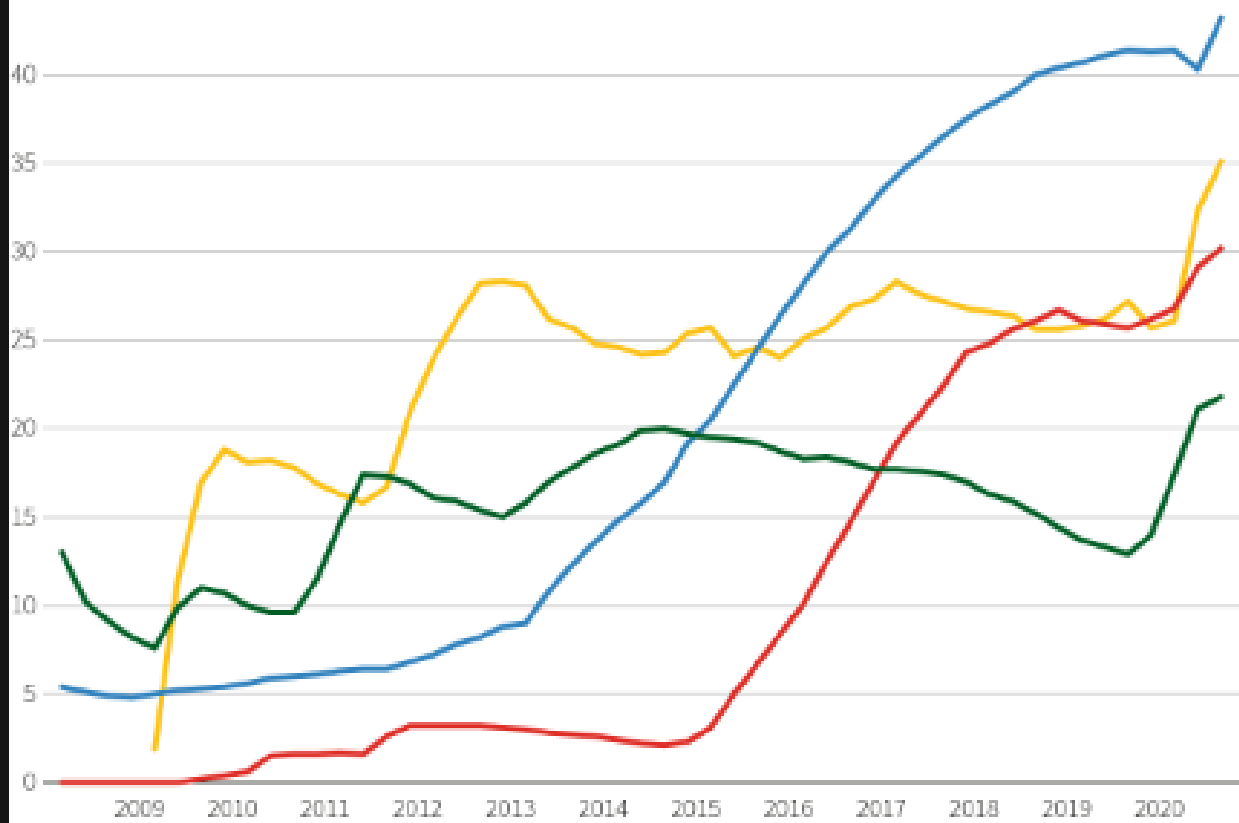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entral bank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Holdings as a % of total issuance

USA EZ Japan UK



Note: Forecast for Q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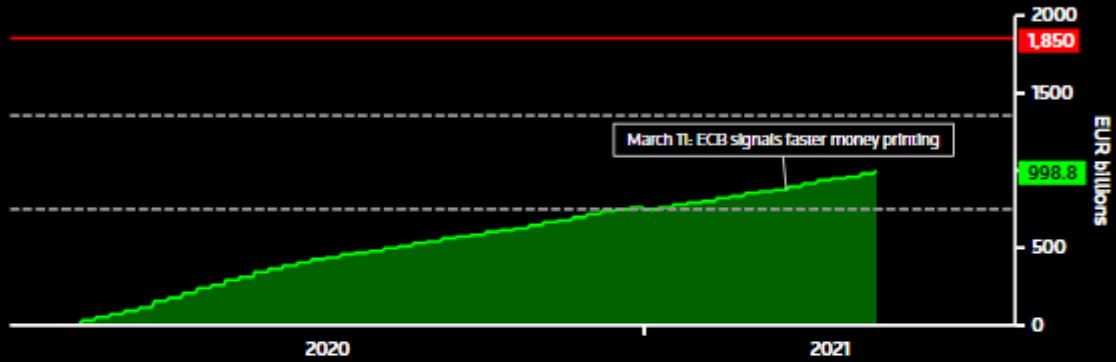
Sour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Haver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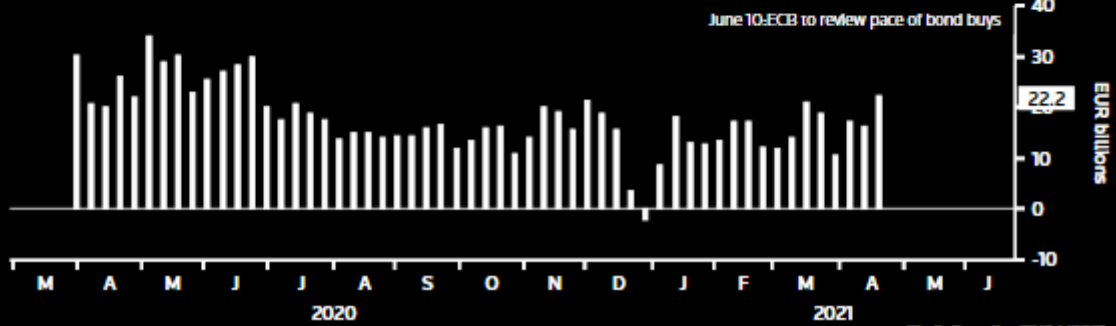
ECB steps up bond buys but is it enough?

Purchases under the ECB's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PEPP), relative to size of total envelope

- Cumulative total ECB QE purchases under PEPP (weekly)
- Prior PEPP envelope sizes
- Total PEPP envelope size (increased as of December 10, 2020)



Weekly purchase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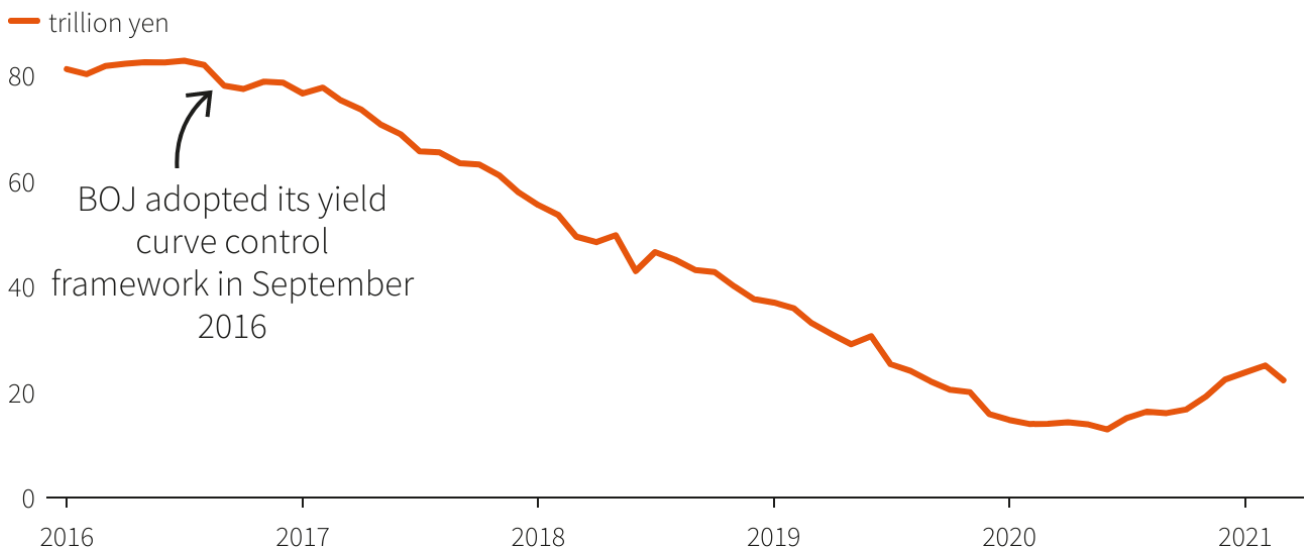
Ritvik Carvalho 27/04/2021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OJ has stopped 'stealth' tapering its JGB buying

Chart shows y/y increase in the BOJ's long-term JGB holdings.



Source: Bank of Japa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